

# 정의로운 마음씨까지... 곱디고운 '군필' 녹두



장동윤

## 장동윤

▲1992년 7월12일생 ▲2011년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입학, 휴학 중 ▲2015년 10월 강도 검거에 도움, SBS '8뉴스' 보도 ▲2016년 웹드라마 '게임회사 여직원들'로 데뷔 ▲2017년 '학교 2017' 주연 ▲2018년 KBS 2TV '뽀빠이' 주연

데뷔 전 편의점 강도 검거에 도움 뉴스 인터뷰 덕분에 연예계 입문 '에비역' 강점... 차세대 스타 예약

연기자 장동윤이 차세대 '대세'로 주목받고 있다. 1992년생으로 아직 20대인 그가 현재 출연 중인 KBS 2TV 월화 드라마 '조선로코-녹두전'을 통해 향후 남자연기자 그룹의 선두주자로 우뚝 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며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남다른 이력과 경험으로도 눈길을 모으며 시청자의 눈도장을 확실하게 받아두었다.

장동윤은 KBS 2TV 월화드라마 '조선로코-녹두전'에서 여장남자 녹두 역을 맡아 연기를 펼치고 있다. 극중 여자만큼 선이 고운 예쁘장한 미모로 여성은 물론 남성(?) 시청자들의 시선까지 붙잡았다. 남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과부촌에 들어가 코믹한 상황에 놓여 좌충우돌하는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내며 안정된 연기력을 과시해왔다. 최근 방송분에서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아차린 뒤에는 긴장감 있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이끌며 호쾌한 액션 연기까지 펼치고 있다.

2016년 데뷔한 장동윤의 이 같은 빠른 성장세에 그의 색다른 이력 그리고 이에 얽힌 일화가 덩달아 눈길을 모은다.

장동윤은 현재 휴학 중인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재학 시절이던 2015년 친구들

과 함께 편의점 강도를 붙잡는 데 힘을 보탤다. 흥기를 들고 점원을 위협하는 강도를 발견하고 전화하는 척 112에 신고한 뒤 도망가는 범인을 쫓아 경찰의 검거 과정에 도움을 줬다.

장동윤의 용기 있는 모습은 한 지상파 방송 뉴스 인터뷰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보도를 본 현 소속사 동아컴퍼니의 김희석 대표가 그를 눈여겨보고 만남을 제의했고 연기자로 데뷔하는 계기가 됐다. 장동윤은 일찌감치 군 복무를 마쳐 현재 예비군 5년차인 '군필'이기도 하다.

이처럼 이색적인 데뷔 과정을 거친 장동윤은 2016년 여성듀오 불쌍간사춘기의 데뷔곡 '우주를 줄게'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고 그해 웹드라마 '게임회사 여직원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기 활동에 나섰다. 이후 '스타 등용문'이라 불리는 '학교 2017'의 주인공 자리를 꿰찼다. 지난해에는 '시를 잊은 그대에게' '미스터 션사인' '뽀빠이'에 출연하며 차근차근 실력을 쌓았다. '미스터 션사인'에서는 큰 역할이 아니었지만, 의병 활동을 위해 무관학교에 들어가는 양반 역을 맡아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바 있다.

장동윤은 광고계의 새 얼굴로도 떠오르고 있다. 화장품, 의류, 외식업, 가전제품 등 다양한 브랜드의 광고모델 제의를 받고 현재 조울 중이다. 차기작도 이미 결정했다. '녹두전'을 마친 뒤에는 저예산 영화를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계획이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 연근·앵두·열녀단, 등장할 때마다 뽐뽐 터지네

(*'녹두전' 감초 조연들*)

'순정남' 고건한 '마스코트' 박다연 '폭소탄' 윤사봉·황미영·윤금선아

'조선로코-녹두전'에 이들만 등장하면 터지는 웃음은 기본이다. 연기력을 바탕으로 캐릭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실제 이름보다 캐릭터명이 더 익숙할 만큼 드라마의 재미를 자아낸다. 연근 역의 고건한, 앵두를 연기하는 박다연 그리고 열녀단 멤버인 윤사봉·황미영·윤금선이다.

극중 고건한은 여장한 녹두(장동윤)에

반해 순정을 바친 후 흔들리는 자신의 '정체성'에 당황하는 캐릭터를 내보이고 있다. 앞서 '계통선녀전'과 '로봇이 아니야'로 유쾌한 웃음을 안긴 그는 단막극 '생일 편지'와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으로는 묵직한 감동을 안기기도 했다.

앵두 역의 박다연은 2011년생이지만 초등학교생답지 않은 활약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맛깔스러운 전라도 사투리로 성인 연기자들의 능수능란하게 대사를 주고받으며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푹 부러지는 언행은 실제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제작진과 출연자들의 귀여



KBS 2TV '조선로코 녹두전'의 재미를 살리는 조연들. 연근 역 고건한 앵두 역 박다연 열녀단의 윤금선아·윤사봉·황미영(왼쪽부터)이다. 사진제공 | 몬스터유니온

움을 독차지하며 드라마의 마스코트로 자리 잡았다.

열녀단 강순녀·박복녀·이말년 역의 윤사봉·황미영·윤금선아는 마치 한 몸인 듯 찰떡궁합의 호흡을 보여준다. 완벽한 합을 이루는 이들은 극중 과부촌의 대소사에 모두 참견하는 우악스러운 수

대쟁이 모습으로 재미를 준다. 윤사봉은 2007년 뮤지컬 '헤어스프레이'로, 황미영은 2008년 연극 '빈키가 없으면 나는 너무 외로워'로 각각 데뷔했다. 윤금선아는 2011년 단편영화 '열일곱', 그리고 '여름' 등 영화에서 알토란의 경력을 쌓아왔다. **백슬미 기자**

## 이번엔 트로트 가수다... 유재석의 무한 도전

드림·하프 연주... 대중과 거리감도 트로트 예능 '뽐 포 유'로 만회 기대



유재석

방송인 유재석이 '음악신동'에 도전한 지 3개월이 지났다. 7월27일 시작한 MBC '놀면 뭐하니?'로 드림·트로트·하프 등 이색적인 음악 소재에 집중해왔다. "신선하다"는 호평과 "대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동시에 받으며 실험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유재석은 '놀면 뭐하니?'를 통해 각종 음악 장르에 도전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있다. 드림을 배워 독주회를 연 '유폐레쉬'를 지난달 26일 마치고 이번에는 하프 연주를 선택했다.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는 과정을 그리는 '뽐 포 유' 코너도 한창 촬영 중이다.

유재석은 데뷔 28년 만에 '신인가수'로서 겪는 좌충우돌 상황으로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다"는 평가를 이끌어냈다. 특히 실험적인 포맷이 그 기반이라는 시선이다. 유희열·이적 등 다양한 가수와 연주자들이 호흡을 맞춰 기타와 코러스 등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릴레이 음원'은

그동안 보지 못한 형식이다.

이 과정에서 그를 채리필터의 드러머 손스타, '박토편'으로 불리는 트로트 작곡가 박현우 등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정덕현 대중문화 평론가는 "최근 지상파 방송사의 문제로 지목된 실험성과 출연자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소했다"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낯선 음악 장르로 대중과 거리감을 좁히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대 이하의 시청률과 화제성이 이를 방증한다. 시청률은 2일 4.9%(닐슨코리아)에 머무르고, 방송으로 공개한 '놀면 뭐해?' '눈치' 등 노래도 각종 음원 차트에서 좀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트로트 녹음 과정에 들어간 '뽐 포 유'가 이런 대중성에 대한 갈등을 해소할지 주목된다. 정덕현 평론가는 "최근 방송가의 화제로도 떠오른 트로트 장르로 다양한 세대의 시청자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원호·서누 과거사 발목... 위기의 몬스타엑스

원호, '빚투'에 대마초 혐의로 탈퇴 서누, 불륜설에 "결혼 사실 몰랐다"



원호



서누

해외에서도 주목받아온 아이돌 그룹 몬스타엑스가 데뷔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뛰어난 실력과 남다른 팬 서비스 등으로 국내외 팬덤을 확장해 온 이들이 가장 큰 인기를 모은 원호와 서누 등 일부 멤버의 과거사에 발목이 잡힌 탓이다.

원호(이호석·26)는 과거 채무 불이행 의혹에 휘말린 뒤 대마초 흡연 혐의까지 불거졌다. 이에 경찰 내사선상에 올랐다. 데뷔 전인 2013년 10월 서울 강남의 한 지인 집에서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일부 증언이 나오면서 경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9월 말 독일 공연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공항에서 수화물과 몸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서누(손현우·27)는 가수 연습생 출신 A씨가 "기혼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제기한 의혹에 휘말렸다. A씨는 과거 박병의 탐과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은

뒤 수사 과정에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A씨는 SNS를 통해 "서누가 최근 결혼한 한 여성에게 연락했고, 해당 여성의 남편이 소속사까지 찾아가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소속사 측은 "여성의 결혼 전 관계이고, 여성이 8월 결혼하면서 이를 서누에게 말하지 않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에 몬스타엑스의 향후 활동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원호의 탈퇴로 7인조에서 6인조로 팀을 재편해 활동하기로 했지만, 최근 8개월 만에 새 앨범을 발표해 보폭은 그만큼 좁아질 것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방탄소년단과 함께 12월 미국에서 투어 형식으로 열리는 '아이하트라디오 징글볼'에 출연할 예정이지만 차질 없이 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 연예뉴스 HOT 4

이동욱, SBS 토크쇼 단독 호스트로



이동욱

연기자 이동욱이 자신의 이름을 내건 토크쇼를 진행한다. 이동욱은 12월 4일 SBS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를 선보인다. SBS가 2000년 '김혜수의 플러스유' 이후 19년 만에 방송하는 단독 진행자 토크쇼이다. 이동욱은 2012년 SBS '강심장'과 6월 케이블채널 엠넷 '프로듀스X101' 등을 진행한 바 있어 이번 토크쇼 진행에 열의를 다지고 있다. 이동욱은 OCN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를 10월6일 마쳤다.

전역 정용화 "멋진 모습 보여줄 것"



정용화

그를 씨엔블루의 멤버 정용화가 3일 전역했다. 정용화는 그동안 복무해온 육군 2군단 702특공연대 부대에서 제대 신고를 마쳤다. 직후 부대 인근인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사무소에서 1000여 팬들과 만나 "더 성숙하고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고 인사했다. 정용화는 작년 3월5일 강원도 화천 15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뒤 특공연대에 자원해 복무해왔다. 정용화는 내년 연예활동에 복귀할 예정이다.

가수 함중아 별세...3일 발인식 엄수



함중아

간암 투병 중 1일 세상을 떠난 가수 함중아(본명 함종규)의 발인식이 3일 오전 엄수됐다. 5년 전부터 투병해온 그는 1일 오전 향년 67세로 숨을 거뒀다. 함중아는 유족과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 부산 영락공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된 발인식 직후 화장을 거쳐 경주 공원묘지에 영면했다. 1970년대 말 밴드 '함중아와 양키스'를 이끈 함중아는 '풍문으로 들었소' '내게도 사랑이' 등 히트곡을 남겼다.

KBS, 8090 '가요톱10' 영상 대방송

KBS가 1990년대 가요와 음악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적 관심에 힘입어 당대 2TV '가요톱10' 영상을 대대적으로 공개한다. KBS는 4일 유튜브 채널 '어게인 가요톱10'을 통해 1985년부터 1998년까지 방송한 '가요톱10' 영상을 '2019 연말특집 창고대 방송'의 제목으로 다시 내보낸다. 첫 날인 4일 1993년부터 1998년까지 1월 1·2주차 영상을 선보인다. 2018년 9월 개설된 '어게인 가요톱10'은 1990년대 '가요톱10'을 포함해 '도요대행진' '쇼 토요일' 등의 영상으로 인기를 모으며 '온라인 탑골공원'으로 불렸다.